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인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지상 설교

##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 - 14절)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을 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기독교가 출발한지 올해로 486년이 되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어떤면으로 진부한 느낌을 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자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합니다. 개혁은 제도의 개혁보다는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개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걸은 신앙의 용장이었지만 그도 시간이 흐르면서 초심이 변하여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 앞에서, 또 훗날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가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중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아브라함의 복종은 즉각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평평하셨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새벽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종은 지속적인 것이었고, 자원하는 것이었고, 침착한 순종이었습니다.**

### 1.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온 이유

(1)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것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종 엘리엘이나 또 하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잔인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함은 미래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2)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믿게 하려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신지식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명령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시려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히 11:17-19). 부활신앙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바로 갖게 되면 새 생명과 새 능력을 받게 됩니다.

(4)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시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한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 2. 아브라함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18절).

준행하였다는 것은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복종은 즉각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새벽,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종은 지속적인 것이었고, 자원하는 것이었고 침착한 순종이었습니다. 모리아산까지는 사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삭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는 나이였고, 이삭은 청년으로서 힘으로 본다면 이삭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대로 목을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대를 이어 이삭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 3.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엘 엘리온(천지의 대주재), 엘 사다이(전능하신 하나님), 엘 로이(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깃발, 승리), 여호와 로히(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준비하시는 하나님)등 하나님은 중중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조치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God will see to it).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숫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바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조치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대하 3:1).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목을 쳐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준비된 양을 효과적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제공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자원하여 순종하며, 침착하게 순종하고, 계대를 잇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준비하시고 보급하시는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3 사명자대회 특별 새벽 기도회

# 오전 5시 교회에서 만남시다

11월10일(월) - 11월22일(토) 13일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 우리나라와 가정, 교회에 임한 총체적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열린 2003 사명자 대회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연속 기도와 식을 줄 모르는 전도의 열정으로 벌써 3주간을 지나고 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내일-11월10일(월)부터 11월22일

## 2003 사명자 대회 태신자 초청 잔치

11월 16일(주) 주일 I, II, III부 예배 후

다음 주일(11월16일)은 우리가 사명자 대회를 시작하며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던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태신자 초청 잔치는 16일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교회와 성도 앞에 소개하는 시간과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 모여

(토)까지 2주간을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기로 하고 기간 중에 오전 5시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로 작정하였다. 모든 성도들은 매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이 되도록 한다.

등록 및 특별 프로그램을 갖고 기념품을 증정하며 8층 만나홀에서 식사와 다과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받은 생명을 사랑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참여하여 이번 주일동안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여 많은 결실을 맺는 잔치가 되도록 한다.

## 2003년 총회 시작되다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남 선교회와 여 전도회 및 각 교회학교의 2003년 한해의 살림을 정리하여 마감하고 2004년을 준비하는 총회가 시작되었다. 이미 지난 주일에는 대학부와 청년부가 첫 번째로 총회를 갖고 2003년 사업보고와 투표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

하여 신규임원을 교체 하였다. 총회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는 기도로 준비하여 2003년 한해의 살림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도록 한다.

### 2003 사명자 대회 24시간 연속 기도표 (11월 10일 ~ 11월 15일)

구분	시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새 벽 기 도 회	11. 10(월) 2교구	김운호 이복규 한달형	김운호 이복규 한달형	김운호 이복규 한달형	김운호 이복규 류종관	김운호 이복규 류종관																			
	11. 11(화) 3교구	윤영국 김세재 서춘식 우지원 정옥희	윤영국 김세재 서춘식 우지원 정옥희	윤영국 김세재 서춘식 우지원 정옥희	윤영국 전기섭 이상호 우지원 정옥희	윤영국 전기섭 이상호 우지원 정옥희																			
	11. 12(수) 4교구	한성준 최학인 김인수 박혜숙 최지순 정정자	한성준 최학인 김인수 박혜숙 최지순 정정자	한성준 최학인 김인수 박혜숙 최지순 정정자	한성준 이재관 박수남 정정자	한성준 이재관 박수남 이현주 김금련																			
	11. 13(목) 13교구	오정식 이갑진 이계종 박우주	오정식 이갑진 이계종 박우주	오정식 이갑진 이계종 박우주	오정식 손병근 오관환	오정식 손병근 오관환																			
	11. 14(금) 9교구	이흥식 진진 우지원	이흥식 진진 우지원	이흥식 진진 우지원	이흥식 박영수 이승우	이흥식 박영수 이승우																			
11. 15(토) 5교구	지혜영 김광신 신용식	지혜영 김광신 신용식	지혜영 김광신 신용식	지혜영 오정수 최명철	지혜영 오정수 최명철																				

## 2004년 신임 서리집사

### 교육 · 면담

11월12일 수요일 1부 예배 후,  
11월12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11월16일(주) 찬양예배 후

2004년 처음으로 서리 집사로 임명받아 한 해 동안 소속 교구와 교회 각 부서에서 일꾼으로 봉사하게 될 신임 서리집사의 교육 및 면담이 금주 중에 시작된다.

서울교회 서리집사로 처음 임명받게 됨을 통지 받은 성도는 11월12일 수요일 1부 예배 및 수요일 2부 예배 후, 11월16일(주) 찬양예배 후 602호실에서 갖는 교육 및 면담 일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교육과 면담은 한번만 받으시면 된다.

## 한국 장로교 신학회

11월15일(토) 오후 1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한국 장로교 신학회의 제3회 학술 발표회가 '장로교회와 예배'를 주제로 오는 15일(토) 오후 1시30분에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 교회 단신

1. 내일 24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종강이고, 성경대과, 주부대학, 경로대학도 이번 주에 모두 종강이다.
2.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교회 설립 12주년 및 추수감사절을 감사하여 교회학교(중,고, 대학, 청년부)에 서 특별 찬양을 한다.

장로가정 탐방 - 정병무장로 · 박경희권사가정

# 하나님 우선순위(優先順位)의 삶!

정병무 장로님 가족의 하루는 매일 새벽기도회에 다녀온 뒤 이어지는 가족예배의 찬송 소리로 시작된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7시40분이면 어김없이 박경희 권사님과 막내아들(승균)내외와 딸(혜승)등 다섯 식구가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장로님은 뿌리 깊은 유교적 전통 속에서 자랐지만 부인인 박경희 권사님과 결혼한 뒤로 박 권사님의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60년대 말, 매우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음에도 박경희 권사님은 거지나 행려병자를 보면 항상 집으로 데려와 정성스레 식사대접을 하곤 하셨다.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던 장로님은 그 모든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의 실천이라는 권사님의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다.

1969년 응봉동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장로님은 이후 날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해갔다고 회고했다. 특히 서리집사 때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풍습을 없애기 위해 고향인 함양에 내려가 고향집의 사당을 없애고 신주를 모조리 불사르기도 했다. 당시 가족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장로님 내외의 기도와 끊임없는 설득으로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은혜도 체험했다.

때로는 눈앞이 캄캄할 만큼 큰 시험을 겪었던 때도 있었다. 몇 년 전에는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 위기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장로님은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다. 하루는 권사님과 함께 집을 나선지 불과 몇 분 뒤에 공사중이던 옆집의 굴뚝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벽돌들이 장로님 거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것이다. 미리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있었고 피해를 준 이웃은 장로님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엄청난 재난을 피한 것도 감사할 일이었지만 뜻밖에 들어온 배상금으로 자금사정

이 어려운 회사에도 큰 보탬이 되어서 장로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

91년 교회 창립 직후 서울교회로 온 장로님은 현재 구제위원장과 3교구장, 임미누엘 찬양대 교사와 베들레헴 찬양대원, 다락방으로 섬기고 계시고, 내년에는 은빛 찬양대 대장을 맡으실 예정이다.

오빠(박두영 집사)와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생활을 시작한 이래 시중 장로님 가정의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 오고 있는 권사님은 내년에 부족한 몸이 권사 회장으로 섬기게 됐다며 겸손한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

두 분의 슬하에는 3남1녀(석균, 진균, 혜승, 승균)가 있다. 또 며느리와 손자 등 13명의 대가족이 함께 서울교회를 나오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라는 말씀을 가훈 삼아 하루하루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정병무 장로님 가정. 그 가정에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시기를 기도한다.

김민철(편집부)



부서 탐방 - 아멘 관현악단

## 관과 현의 앙상블

3부 청년 예배의 헌금송을 담당하고 있는 아멘 관현악단(대장:천정화 집사)은 올해 초 4명이던 단원이 지금은 13명이 되어 바이올린 6명, 플루트 3명, 클라리넷 1명, 트럼펫 1명, 콘트라베이스 1명과 피아노등이 관과 현의 앙상블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부흥은 기도의 열매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20명의 단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은 매주 금요일 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지난 8월, 아멘 관현악단에 트럼펫 주자로 합류한 손영호 집사님은 새가족부 홈커밍데이에 참석하여 입단체 의를 받고 흔쾌한 마음으로 수락하였다. 본업은 수의사이지만 8년간 트럼펫을 배우고 연주했으며 지금도 지도를 받고 있다는 손 집사님은 당시 여자 단원들만 있던 아멘 관현악단에 본의 아니게 청일점이 되었지만 아멘 관현악단에 여러 가지로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한 대원은 귀뜸한다.

이들 아멘 관현악단은 중학생으로부터 청년과 장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지만 마음만은 하나여서 서로를 아끼고 칭찬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이유리 자매는 집이 천원이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중학생 규리와 대한 남매는 나란히 와서 각각 플루트, 클라리넷을 연주하며 교회에 지주 못나 오시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 고등학생 김지영 자매는 1부와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아멘 관현악단을 위해 또 3부 예배를 드리며, 만연니 격인 이현옥 자매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선곡하기 위해 악보를 구하러 다니기에 여념이 없다고...

아멘 관현악단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음 악기 주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첼로나 비올라와 같은 저음악기가 소리를 받쳐준다면 더 훌륭한 관현악이 될 수 있다며 중학생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주 경력의 소유자라면 한 번쯤 아멘 관현악단의 문을 두들겨 보라고 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교회 내 부서 지원활동도 할 예정이어서 교회 부서를 순회 연주할 계획이라며 교회의 특별 행사에도 요청이 온다면 기꺼이 달려갈 것이라고 한다.

사랑자 대회 - 24시간 연속 기도

##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오형철 집사(12교구)



암울하고 황무한 시대에 살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교회중심,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예수 없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문 열어 놓고 살핀 송아지를 준비하고 계시건만 죄를 이기지 못해 세상에 쓰러져 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의 감격도 감동도 잃어버리고 사랑의 눈물도 말라버린, 이름만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주님!

이번 사랑자 대회 연속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고, 잃어버린 경건과 영성도 되찾게 하옵소서.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나라가 이땅에, 또 우리의 가슴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12년 전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서울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던 그 감격과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계단의 불이 한 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 12살의 청년의 때를 맞아 힘차게 달려가는 서울교회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 이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권을 씌어 주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내년부터 이원형 장로님을 대장으로, 천정화 집사님을 부대장으로 하여 새롭게 조직되는 아멘 관현악단의 더욱 아름다운 연주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허속(편집부)

# 가정의 바른 회복

이규정 특사(신혼가정부 지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곳곳에서 최근에 '스위트 홈'으로서의 가정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은 특히 IMF 경제 위기 이후 더욱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경제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기업이나 공장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는 가정도 같은 형편임이 드러난 것이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혼인 이혼 통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난해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해 이혼율이 혼인율의 반 가까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중에 동거 3년 미만의 부부가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함께 살았다고 형이혼이 증가하고, 70이 넘는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나타났다.

논란이 많던 주 5일제 근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남으로 가정의 행복이 증진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예는 그리 밝은 전망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또한 의도를 조정하는 TV 드라마, 혼전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의 증가 등은 앞으로 계속 이혼을 증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이유를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소위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매우 일반적으로 퍼져 있음으로 더욱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모든 사람이 이혼을 쉬운 이야기 거리로 치부하면서 대책 없이 구경만 하고 있는 형편이니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결혼5년차 이하의 가정들의 모임인 '신혼가정부를 지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은 이런 모습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완전한 성인사회와 청년 사이의 긴 세대이기도 한 이들 신혼 부부들이 연습 없이 시작하는 가정을 신앙 안에서 세워가고, 삶의 나눔을 통해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부부들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본다. 이들의 모임에는 순수함과 사랑이 넘쳐흐른다. 그대로가 천국의 골짜기요, 은혜의 들판이다. 이들의 모임에서는 다른 특별한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아도 된

다. 신혼가정부는 세상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더욱 복되게 세우는 도드란 사랑의 강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내에서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부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눔으로 가정을 세우는 훈련의 모임이 더욱 많아져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지길 바란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 부부는 순결로써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회복된다면, 일반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물론 교회도 바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가장먼저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수험생을 위한 공부기도의

##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비자

지난 5일 수확능력시험이 있던 날 교회 706호에서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었다. 이 날 기도회는 우리교회 교인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수험생 학부모와 중보기도자들을 포함하여 100명 가량이 참석하여 뜨거운 시간이 되었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한 기도회는 오전 11시에는 수요일에 배를 드리고 오후 6시까지 이어졌고, 기도회를 인도한 오정식 목사와 이태훈 목사는 각각 여호수아 1:1-9, 전도서 11:8-10, 마태복음 8:23-27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비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것이다. 또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이다.

민족과 국가가 풍전동화와 같이 위태로운 이때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녀들이 진정 가야 할 길이 명문대학뿐인가! 수확능력시험을 보다가 뛰쳐나가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린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또 시험을 보고 돌아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고생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등을 떠민 사람은 누구인가!

광풍에 가까운 교육열로 온 나라가 후끈 달아오른 지금



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연상시킨다. 불안하여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다.

이 날 참석한 타 교회 학부모 가운데는 서울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한다기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왔다가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자녀들을 향한 자신의 가치관과 교육관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이었는지 돌아보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마음에 참 평안을 찾았다고 했다.

이 날 수험생 학부모들은 교회와 중보기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간식과 차를 준비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 중보기도한 루디아 여전도회원들에게 특별한 감사사를 전했다.

### 2003 사명자 대회 대신자 명단

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민주 김현수 이준모 이병희 이용희 한상태 김경애 김경화 박춘자 이강복 조현숙 이원자 류운길 이수현 이민영 이만재 김면지 이지영 이수종 김민지 이재승 문형숙 김성연 모친 전수민 기득 이숙영 정이영 송영순 김숙희 최창식 안종철 이수남 안상인 안훈성 정숙자 김중선 명준형 명나린 홍동진 안민선 홍석오 김옥희 김영희 이소연 (다음 주 계속)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3일(목)군산교연합회 정기 이사회, 15일(토) 한국 장로교 신학회 제3회 논문 발표회를 소집한다.
- 개업: 황의호 집사(14교구) '삼엔지' 일원2동 미시860오피스텔 16층 9호 전화 445-4733
- 금주의 식사: 김희훈 집사, 김희정 집사가정 (아버지 김상식 집사 절수를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06.9M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케이블 CH 42 금 오후 7시
- 기독교 방송 위성 TV CH 162 수 오전 7시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3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사명받고 사명따라 행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외약도 :

